

→선행하는 음운이 모음이냐 자음이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.

(‘으’를 매개모음으로 보는 입장도 있음)

② 형태론적 이형태 : 하나의 형태소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이다. (음운론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들)

과거시제를 나타내는 ‘였/었’ → ‘-었-’이 기본 형태이지만, 특별히 ‘하-’ 어간 뒤에서는 ‘-였-’으로 바뀌게 된다.

명령형 어미 ‘어라/너라’ → ‘-어라’가 기본 형태이지만, 특별히 ‘오-’에서만 ‘-너라’로 바뀌게 된다.

2. 단어의 형성

1) 단어 : 자립할 수 있는 말이나,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. 그러므로 ‘하늘’과 같은 자립 형태소는 그대로 하나의 단어가 되고, 의존 형태소인 ‘맑-’, ‘-다’는 ‘맑다’처럼 서로 어울려야 비로소 하나의 단어가 된다. (음운은 최소의 의미 변별 단위, 형태소는 최소의 의미 단위, 단어는 최소 자립 단위)

2) 단어의 종류

① 자립할 수 있는 말

: 명사, 대명사, 수사, 관형사, 부사, 감탄사, ‘용언어간+선어말어미+어미’(동사, 형용사)

② 자립형태소에 붙는 의존형태소이면서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

: 조사

3) 단어의 형성

① 단일어 :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

② 복합어 : 둘 이상의 어근이나(합성어), 어근과 파생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(파생어)

- [예] 산, 하늘, 맑다 → 단일어
- [예] 어깨+등무, 앞+뒤, 작(은)+아버지, 뛰(어)+나다 → 합성어
- [예] 꽃+사랑, 치+숫(다), 잡+히(다), (평+화)+-적, (공+부)+-하+-다 → 파생어

- [예] 새콤(어근)+달콤(어근)+-하(파생 접사)+-다(굴절 접사)

(‘새콤달콤하다’는 어근 끼리 직접 결합한 합성어이다. 이 합성어에 다시 파생 접사 ‘-하-’

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되었다.)

◇ 참고 : 어근, 접사, 어간, 어미

* 의미의 중심여부

- 어근 : 단어의 중심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; 단어 분석 시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
- 접사 : 단어의 부차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; 어근에 붙어 그 뜻을 제한하거나, 어근의 품사를 바꿔주는 형식형태소

(ㄱ) 위치에 따라

접두사 - 어근의 앞에 붙는 것. 예) 맨손, 덧버선

접미사 - 어근의 뒤에 붙는 것. 예) 덮개, 지붕(집 + 웅)

(ㄴ) 기능에 따라

한정적(同種的)접사 - 품사는 그대로 두고 어근의 뜻만 제한하는 것. (굴절 접사)

예) 집 + 웅, 덧 + 버선

지배적(異種的)접사 - 품사를 바꾸는 접사.(=파생 접사)

예) 덮개(동→명), 사람답다(명→형)

* 활용 시 변화여부

- 어간 : 용언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 ; 기본형에 붙는 모든 종류의 어미
- 어미 : 용언 활용 시 변하는 부분 ; 어근에 붙어 어근의 뜻을 제한하는 부분

4) 복합어 - 파생어 : 어근의 앞이나 뒤에 파생 접사(어근의 앞에 붙는 파생접사는 접두사, 어근의 뒤에 붙는 파생 접사는 접미사)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

(ㄱ) 접두사에 의해서 파생된 단어 : 특정한 뜻을 더하거나 강조하면서, 즉 뜻을 한정하는 의미적 기능(한정적 접사)을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. 접두사는 접미사에 비해서 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다. 그 분포에 있어서도 명사, 동사, 형용사에만 존재하고 있다.

* 품사가 정해진 경우의 접두사 사용

예) 명사 : 군소리, 날고기, 맨손, 돌배, 한겨울

예) 동사 : 짓누르다, 엿보다, 치솟다

예) 형용사 : 새까맣다, 알뜰다, 드높다

* 명사와 용언에 두루 쓰이는 접두사 - 헛수고, 헛되다/ 애호박, 앳되다/ 덧신, 덧신다.
 접두사 중에는 품사를 바꾸는 통사적 접사(지배적 접사)도 존재한다.

예 메마르다, 강마르다 → 동사인 '마르다'를 형용사로 바꾸어 주고 있다.

예 슷되다, 엇되다 → 동사인 '되다'를 형용사로 바꾸어 주고 있다.

* 접두사는 나름대로의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때로는 그 형태를 바꾸기도 한다.

예 '울-' → '올벼/오조' '애-' → '앳되다/애호박' '멤-' → '멤쌀/메벼'

• 관형사와 관형사성 접두사, 부사와 부사성 접두사 구분 : 중간에 다른 말을 넣을 수 있으면 각각 관형사와 체언, 부사와 용언인 두 개의 품사이고, 넣을 수 없으면 체언 및 용언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이다.

예 맨 쓰레기밖에 없다. → '모두, 온통'의 뜻 (맨 더러운 쓰레기밖에 없다)

예 맨손 체조 → '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'의 뜻 (맨 깨끗한 손 체조)

• 접두사의 의미

돌- : '품질이 나쁜 것'이나 또는 '산과 들에서 저절로 생겨서 사람이 가꾼 것보다 못하게 된 것'을 나타낼 때 쓰는 말

홀- : '짝이 없고 하나뿐'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

시- : '시집'의 뜻을 나타내는 말

양- : 서양 및 동양, 특히 '서양'을 줄여서 이르는 말

올- : '열매가 보통 것보다 일찍 익은'의 뜻을 나타내는 말

풋- : '처음 나온' 또는 '덜 익은'의 뜻을 나타내는 말 (풋고추, 풋나물)

'미숙한', '깊지 않은'의 뜻을 나타내는 말 (풋사랑, 풋잠)

(L) 접미사에 의해서 파생된 말 : 뜻을 더하는 의미적 기능뿐만 아니라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문법적 기능도 하면서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낸다. 접미사는 접두사에 비해 숫자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, 그 분포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하다.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어가 되는 품사 유형은 명사, 대명사, 수사, 동사, 형용사, 부사, 조사 등 매우 다양하다.

* 어근에 어휘적 접사가 붙어 본래의 품사가 그대로 유지된 파생어

파생체언 : 못쟁이, 앞사귀(명사) ; 너희, 그들(대명사) ; 열이, 셋째(수사)

파생용언 : 밀치다, 깨뜨리다(동사) ; 거뭇다, 늙다(형용사)

파생 부사 : 더욱이, 다시금(부사)

* 본래의 품사를 바꾸는 통사적 접사가 붙은 파생어

파생체언 : 물음, 넓이, 개구리(명사) ; 그대 (대명사); 첫째, 두어째(수사)

파생용언 : 공부하다, 좁히다, 철렁거리다(동사) ; 가난하다, 미덥다, 반듯하다(형용사)

파생 부사 : 진실로, 마주, 멀리, 없이, 있어(부사)

5)복합어 - 합성어 :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

(ㄱ) 통사적 합성어 : 통사적 합성어는 통사론적인 시각에서 볼 때 두 어근 또는 단어가 연결된 방식이 문장에서의 구나 어절의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.

(ㄴ) 비통사적 합성어 : 비통사적 합성어는 일반적인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법과 어긋나는 방법으로 형성된 것을 말한다.

① 용언과 체언이 연결될 때 소위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생략되는 현상 :

예) 늦잠, 늦더위, 껌쇠, 감발, 뉘밥, 접칼(작은집, 큰집, 짚손)

② 용언과 용언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연결 어미(-아/어, 게, 지, 고)가 생략되는 현상 :

예) 여닫다, 우짚다, 검푸르다 ; 뛰놀다, 잡쥐다(들고나다, 돌아가다)

③ 국어의 부사는 용언이나 관형사나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인 원칙인데 부사가 체언 앞에 오는 현상 :

예) 부슬비, 험떡고개, 출랑새

④ 한자어에서 많이 나타나는 구성으로 우리말 어순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것이다. (목적어와 부사어가 서술어 앞에 오는 것이 일반적)

예)독서, 급수 ; 등산(일몰, 필승, 고서)

• **합성어와 구의 변별 기준** : 합성어와 구를 나누는 기준은 분리성, 띄어쓰기, 쉼, 의미 변화 등이 있다.

(ㄱ) 분리성(합성어와 구의 가장 중요한 변별 기준) : 합성되는 두 어근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. 합성어는 들어갈 수 없고, 구는 들어갈 수 있다.